

한의학문제풀이(26회)

01. ③
02. ③
03. ②
04. ③ 清氣在下則生飧泄 濁氣在上則生膈脹
05. ③
06. ⑤
07. ④ 五八 腎氣衰 髮墮齒槁 (중략)
七八 肝氣衰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
八八 則齒髮去 <素問 上古天真論論>
齒者 骨之所終 髓之所養 腎實主之. 故經云 腎衰則
齒豁 精盛則齒堅 虛熱則齒動 <仁齋直指方>
08. ④
09. ② 筋極, 骨極, 血極, 肉極, 精極, 氣極
10. ⑤
11. ②
12. ①
13. ② ④
14. ④
15. ②
16. ②
17. ①
18. ①
19. ④
20. ⑤ 麻疹初期
21. ⑤
22. ②
23. ① ② 傷寒蓄血何以明之 蓄血者 在下焦結聚而不
行 (중략) 有太陽蓄血與陽明蓄血之分 <傷寒明理論>
24. ③
25. ①
26. ④ <의종금감>, <류경도익>, <침구보원>
모두 (단혈: 52 / 쌍혈: 309 / 혈위 수 361)
27. ②
28. ①
29. ③

30. ④ ⑤
31. ⑤
32. ③
33. ① 부인이 밤에 도둑을 만나 大驚 후 소리만 들
리면 驚하여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다. 의사가 心
病으로 여겨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. 대인이
보고 말하길 "驚은 陽證으로 밖에서 들어온 것이고,
恐은 陰證으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. 驚은 자기가
알지 못하는 것이고, 恐은 자기가 아는 것이다. 膽
은 용감과 관계하니, 驚怕하면 담이 상한다"고 했
다. 양손을 잡아 의자에 앉히고 앞에 책상을 놓고 말
하기를, "부인 이것 보세요"라며 나무로 세게 치니
부인이 매우 驚했다. 조금 있다가 또 치니 驚이 조
금 누그러졌고, 계속해서 4~5번 내리친 다음 驚은
서서히 진정되었다. 감탄하여 "이것은 어떤 치료법
입니까?"라고 물으니 대인은 "'驚者平之'라 하는데,
平은 常(익숙해짐)이다. 平常하면 驚하지 않게 된다
" 하였다. (부인은 이후) 밤에 창문을 두드려도 저녁
부터 새벽까지 깊이 잠들어 소리를 듣지 못했다.
34. ②
35. ④
36. ⑤
37. ①
38. ②
39. ⑤
40. ②